

문화 단신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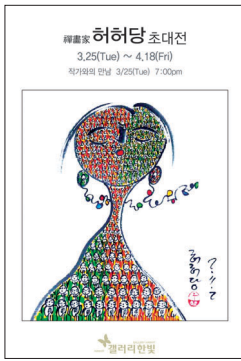
허허당 스님 초대전 4월 18일까지

“불이 나면 꺼질 일만 남고 상처가 나면 아물 일만 남는다.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선화가 ‘허허당(虛虛堂) 스님’의 초대전이 울산 갤러리한빛에서 4월 18일까지 열린다. 허허당 스님은 비학산 자락 산골마을 단칸방 ‘휴유암’에서 그림 그리며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환희충만’ ‘고요한 기쁨’ ‘禪舞 깨달음의 춤’ 등 선화 25여 점을 전시한다. 스님의 작품과 함께 전하는 글은 전시의 또다른 재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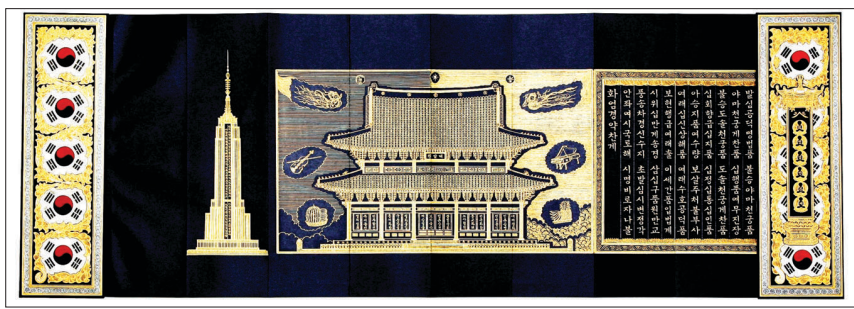
고요한 기쁨에서는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다 해도 그대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며, 깨달음의 춤에서는 “새가 날개를 펴면 허공이 새의 날이터이듯 사람은 마음을 펴면 천하가 날이터이다”라고 말한다.



1974년 해인사로 출가해 1978년부터 붓을 잡고 1983년 지리산 벽송사 방장 선원에서 본격적인 선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내 전시회 뿐 아니라 2000년 6월 스위스 취리히, 2010년 하와이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허허당 스님은 작은 동자승들을 점점 그려 넣어 화면을 채우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쳐왔다. (052)903-0100 정혜숙 기자

또한 굴곡진 산과 나무 하나 하나에 동자승들이 가득 그려져 있는 100만 동자상 병풍도 눈길을 끈다.

한편, 허허당 스님은 1974년 해인사로 출가해 1978년부터 붓을 잡고 1983년 지리산 벽송사 방장 선원에서 본격적인 선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내 전시회 뿐 아니라 2000년 6월 스위스 취리히, 2010년 하와이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허허당 스님은 작은 동자승들을 점점 그려 넣어 화면을 채우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쳐왔다. (052)903-0100 정혜숙 기자



김경호 작가의 ‘감지금니 일불일자 화엄경약찬게’

뉴욕에서 선보이는 한국의 전통사경

김경호 사경전 4월 3일부터

전통 사경이 미국 뉴욕을 찾는다. 코리아 아트 포럼이 기획하고 뉴욕한국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외길 김경호 작가의 전통사경전이 4월 3일~5월 3일 미국 뉴욕 갤러리호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감지금니 일불

일자 법화경약찬게’ 등 다양한 사경 작품을 통해 한국 사경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4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작가의 전통사경 제작 시연이 있으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리셉션이 진행된다. 212 502-1894

정혜숙 기자

제20회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

목아박물관 주최, 4월 21일까지

목아박물관은 ‘제 20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가할 어린이들을 모집한다. 전국의 만 5세 이상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부분은 △부처님을 주제로 한 크레파스 스승채화 스펀화 기타 자유부분 등이다. 접수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할 수 있으며, 개인은 일반 8절지 도화지 뒷면에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단체일 경우에는 참가신청서를 이메일(mokachan@hanmail.net) 또는 팩스(031-885-9951)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21일까지며 참가비는 무료다. 당선작 발표는 4월 23일 수요일 목아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031)885-9952 정혜숙 기자

禪의 세계에 담아낸 ‘법화경 7만자’

유명 서예 작가 10명 사경 작품... 4월 5일~12일 동화사서

《법화경》은 한국 불자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경전으로 많이 신자들이 사경을 하며 불심을 키우고 있다. 7만 자의 법화경 한자를 한 자 한 자 새기다 보면 어느새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한다.

사경을 통해 불심을 보여주는 전시가 눈길을 끈다. 국내 유명 서예가 10인이 펼치는 ‘서예 《법화경》대축전’이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다. 동화사와 한국미술관이 주최하는 이 전시는 4월 5일~12일 동화사 선문학관에서 열린다.

전시 작가로는 △구당 여원구 △신열목 △산민 이용 △혜화 이순자 △용현 이윤용 △이미화 △초암 김시은 △박역 김진희 △백연 박문환 △지현 박외수 등이 참여한다.

행사를 기획한 동화사 도감 법희 스님은 “법화경 약왕보살 본사품에는 법화경의 경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그 공덕은 굉장하다고 설하고 있다. 동화사 법화산림 기간 동안 불자들이 대가들의 작품들을 한번에 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공덕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동화사 전각 중 하나인 연경전은 조선시대 법화산림이 크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를 기념해 동화사는 3년전부터 법화산림 법회를 통해 법화경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전하고 있다.

법화경 한문은 7만여 자. 이를 사경한다는 것은 깨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박역 김진

희 작가는 묘법연화경 7권을 선택한 세긴 법화석경으로 눈길을 끈다. 흑주석 계열의 베틀돌에 새긴 이 작품은 선택 한 장의 크기가 30cm×30cm×4cm(가로×세로×두께)로 글자수는 가로 13줄 세로 17자로 221자가 들어갔으며 이를 총 365판에 완성해냈다. 작업기간만도 5년이 걸렸다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작업을 하고 있냐고, 하지만 한 자 한 자 새길 때마다 공덕을 쌓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김진희 흑주석에 작품 새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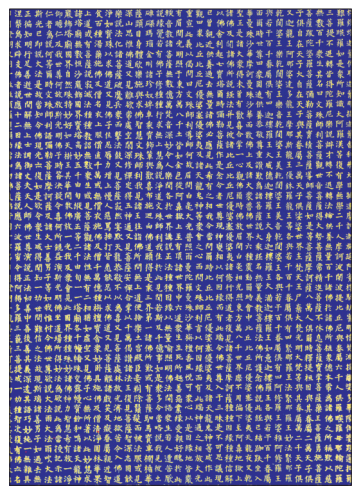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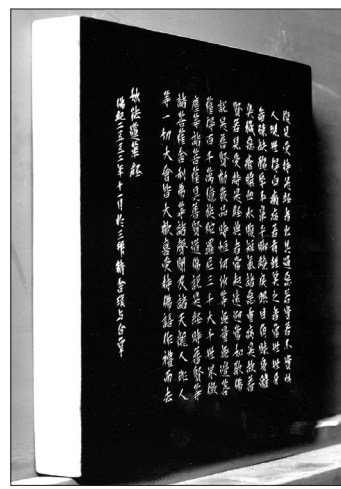
이윤용 옷칠 한지에 변상 그림

박외수 목판에 쓴 해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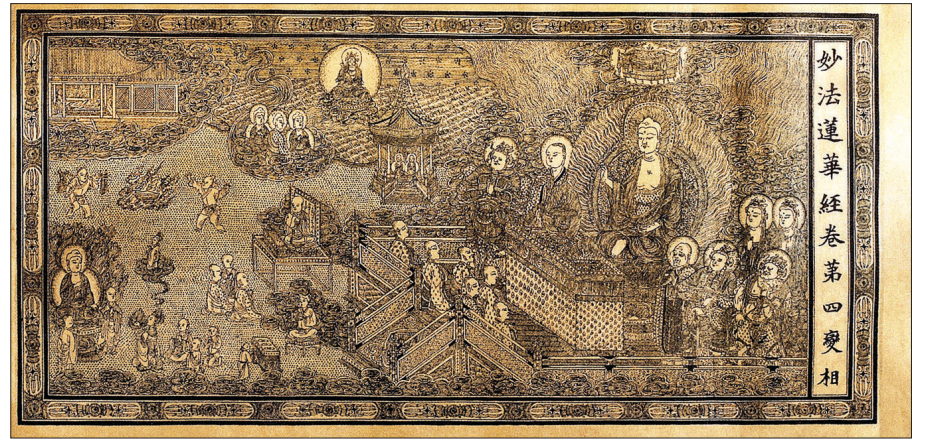
리고 작업에 몰입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객관화 되는 느낌을 받으며 온전히 무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체 한문 7만자(두루마리)와 옷칠한 한지에 경면주사 글씨를 전시하는 이윤용 작가는 “늘 참선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경을 하고 있다. 사경에 빠지면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작업에 매진하게 된다. 예전에는 금니사경을 많이 했는데, 사경을 오래 할수록 목이 좋아 옷칠한 한자에 묵서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외수 작가는 법화 목경 해서체 7만자를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박 작가는 “수많은



동화사와 한국미술관이 주최하는 ‘서예 《법화경》대축전’이 4월 5일~12일 동화사 통일약사대불전에서 열린다. 시계방향으로 김진희 작가의 법화 석경, 박외수 작가의 해서체, 이윤용 작가의 ‘묘법연화경 권제삼 변상도’



은 글자를 한 폭에 써 넣으려니 중도에 글자가 빠지거나 틀린 글자가 나오면 수십일 동안 쓴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 사경의 길이 매우 어렵기도 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작업을 하는 동안 예술과 종교가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4월 6일 전시 개막식에서는 작가들 작품 점안 법회와 범주 스님의 퍼포먼스, 효산 스님의 작품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시 후에도 작가들의 개인전시도 동화사 불교문화관 선갤러리에서 릴레이로 펼쳐질 예정이다. 010-5275-4330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통도사성보박물관 선석사 괘불탱 전시

4월 6일~9월 30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제30회 괘불탱 특별전 작품으로 ‘경북 성주 선석사 괘불탱화’를 4월 6일~9월 30일 전시한다. 영산회상을 표현한 이 그림은 부처님과 가섭의 ‘염화미소’를 표현해 눈길을 끈다.

화면의 중앙에는 석가여래가 서 있고 각기 연꽃을 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양 옆에 위치했다. 그 뒤로 가섭과 아난존자를 포함해 4명의 제자가 석가여래를 향해 구름을 배경으로 서 있다. 석가여래는 왼손을 가슴께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결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어깨 위로 들어 역시 엄지와 검지로 연꽃가지를 잡아 연꽃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석가여래의 도상은 염화시중, 즉 석가여래가 영축산에서 설법하실 때 그의 제자 가섭만이 석가여래가 말없이 꽃가

지를 들어 올린 뜻을 알고 미소로 답했다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도상은 ‘법화경변상도’와 같은 불교판화와 전각 내 봉안되는 후불화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예가 많지 않다. 물론 괘불탱화 중 보관을 쓴 장엄신의 보살형 여래가 꽃을 들고 있는 도상으로 표현된 경우도 있지만, 여래의 모습으로 꽃을 들고 나타나는 도상의 괘불은 ‘선석사 괘불탱화’가 가장 이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그림은 1702년에 조성되었으며, 세로 709.0cm, 가로 457.0cm의 크기로 선석사 대웅전 내 불단 뒤 괘불함에 보관되어 왔다. 괘불함은 괘불함의 목서를 통해 괘불이 제작된 4년 후인 1706년에 기영 스님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면 위 부분과 아래 부분은 보살화당초문으로 이루어진 그림 장황으로 표현하였고 화기는 그림 장황의 바로 위에 굵은 주

선으로 구획한 흰 바탕에 목서로 기재되었다. 화기 란의 위에 역시 주선으로 별도의 칸을 구획하여 중앙부터 ‘주상전하수만세 왕비전하수재내 세자저하수천추’라 했다. 화기에 의하면 강화41년 즉, 1702년의 4월에 ‘영산회도’를 봉안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 이 그림이 영산회상의 장면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증명에는 밀영 스님이, 지향 비구로 사연 스님이 참여하고 있으며, 탁월을 수화승으로 하여 법해, 설장, 성징 스님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선석사는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이다. 선석사는 신라 효소왕 1년인 692년에 의상이 창건하여 선광사라고 하였으며,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에 나옹 혜근이 주지로 부임한 후 동쪽으로 터를 옮겼는데, 새 터를 뒤편에 터를 옮겼다가 순조 4년인 1804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정혜숙 기자



경북 성주 선석사 괘불탱화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결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특별 할인가로 모십니다**

-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바고) 5일** 699,000부터
- (양곤 바간 헤호) 5일 1,290,000부터
-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1,190,000부터
-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0,000부터
- \*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1,090,000부터
-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1,290,000부터
- \*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899,000부터

해의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중국·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헤거 두손모음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 양곤 바간 헤호 5일.....요금문의
-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요금문의
-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이티오 7일.....요금문의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채구 황룡 6일.....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 7일.....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